

내년 대선 'DJ 정신'으로 통합해야 정권교체 길 열린다

김대중 전대통령 서거 7주기 맞은 갈라진 야권

문재인 단일화 언급 안철수 목록부담...추도식 어색한 만남 이정현 "위대한 정치지도자" 정진석 "기자 시절 많은 사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가 분열된 야권에 '반성과 성찰'의 깊은 울림을 던지고 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경쟁적으로 'DJ 정신' 계승과 'DJ의 적통'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분열의 현실은 통합에 방점을 둔 DJ 정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보수정권 10년 동안 더욱 피폐해진 호남의 상황은 DJ와 호남을 핵심 기반으로 하는 야권에 내년 대선을 앞두고 대승적 결단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 통합을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의 만능다움 헌신적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정치공학적 통합론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당도 보수정당의 한계도 있지만 야권 통합 논의 자체를 타부시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야권의 정권 창출의 역동성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눈총을 받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날 추도식에서는 분열된 야권의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와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옆자리에 함께 앉았지만 의미 부여할만한 대화는 없었다. 최근 방문한 네팔(문 전 대표)과 미국(안 전 대표)에 대한 대화가 전부였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추도식장에서 "지난 번 총선 과정에서 야권이 서로 경쟁했지만, 내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뜻을 함께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으나 이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안 전 대표는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야권 통합 등의 이슈가 제3당인 국민의당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관계가 소원해진 알려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 대표와 문 전 대표는 이날 "안녕하시나"고 짧은 인사만 나누고 다는 대화를 하지 않아 냉랭한 분위기를 반영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야권 분열의 원인

을 제공한 문 전 대표가 대선을 앞두고 협력을 거론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맞느냐"며 "최소한의 반성도 없는 문 전 대표의 발언은 정치적 도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DJ 서거 7주기를 맞아 과거와 다른 깊은 애도의 모습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이날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고 큰 업적을 남겼다"며 "국익과 국민을 바라본 진정한 정치인"이라고 추도했다.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동작동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김 전 대통령의 서거 7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정현 대표는 추도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말 많은 것을 분받고 싶은 위대한 정치지도자"라고 밝혔으며 정 원내대표는 "기자 시절에 김 전 대통령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회고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DJ는 사후 더 평가를 받으면서 시대를 관통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다시 생각하게 한다"며 "야권은 DJ 정신에 부끄럽지 않게 헌신적인 모습을 통해 정권 창출의 동력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8일 광주시 동구 5·18 민주화운동기록관 7층에서 열린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7주기 추도식'에서 추도객들이 헌화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박원순 강진 토담집 찾아 손학규와 단독회동

경제난·청년실업 문제 논의 대권행보 본격화 수순 주목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선 행보가 빨라지는 분위기다. 박 시장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2박3일간 광주와 전남에서 일정을 소화하며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6일에는 전남 강진에 집거 중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를 찾았다. 박 시장과 손 전 대표 모두 야권의 '잠룡'인데다 손 전 대표가 최근 정치행보를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여러 정치적 해석을 낳고 있다. 이번 주 지리산 등에서 여름 휴가를 보내고 있는 박 시장은 이날 손 전 대표가 머물고 있는 강진 백련사 인근 토담집에 들렀다고 정치권 관계자들이 18일 전했다.

손 전 대표는 토담집에서 박 시장과 차를 마시며 환담한 뒤 강진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두 분이 배석자 없이 덕담을 나눴다"면서 "경제난과 청년실업문제 등에 대해 함께 격정을 나누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은 두 사람이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수순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난 16일 강진에 머물고 있는 손학규 더불어민주당 전 상임고문을 찾아 비공개 회동을 갖고 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

발기의 성격을 띤 것으로 정치권에서 보고 있다. 더구나 박 시장이 최근 청년수당 문제로 박근혜 정부와 한껏 각을 세우며 보폭을 넓히고 있고, 손 전 대표는 '집거'를 마치고 바깥 나들이를 하면서 사실상 정치 재개의 초입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특히 더민주의 대권후보 구도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독주하는 가운데, 사실상 후배 주자인 박 시장과 손 전 대표가 만난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시장 측 관계자는 "강진을 지나다가 들른 것으로 특별한 목적이 있었

던 것이 아니다"며, 손 전 고문 측 관계자는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박 시장은 18일 저녁에 광주·전남지역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지역 여론을 수렴했다. 박 시장의 이번 광주·전남 방문은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호남 여론을 청취하고, 광주와 전남지역에 사실상 대선 조직을 꾸리기 위한 행보였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현배기자 cki@kwangju.co.kr /강진=남철희기자 chou@

직권남용·횡령 혐의...우병우 수사의뢰

이석수 특별감찰관 검찰 종료 앞두고 수사의뢰서 보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을 파헤쳐온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우수석의 범죄의혹을 정식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 감찰관은 이날 오후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로 우 수석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보냈다.

대검은 이 감찰관의 수사의뢰서를 검토한 뒤 사건을 조만간 일선 검찰청으로 배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 감찰관은 지난달부터 우 수석의 가족 회사를 통한 세금 회피 및 재산 축소 의혹,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논란 등을 검찰해 왔다.

특히 아들의 운전병 인사 발령 과정에서

외압·청탁이 있었는지, 휴가·외박 등에 특혜가 없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또 가족회사인 '정강'을 통해 고급 승용차 리스비용을 부담시키거나 세금을 회피하고 재산을 축소할 정황이 있는지, 부동산 거래·농지 관리 등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들여다봤다.

한 달이라는 검찰 기간 종료를 앞두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은 일단 범죄행위로 의심할 만한 혐의가 있어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과 규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수사의뢰는 특별법에 따른 조치다.

특별법 제19조는 검찰 결과 드러난 검찰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

정한다.

범죄 혐의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한다.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또는 증거인멸 등을 방지하거나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의뢰를 한다.

감찰관 활동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하고 종료된다. 이후 이 감찰관은 검찰 종료 후 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 이내에 검찰 진행경과, 세부 감찰활동 내역, 감찰결과와 그 이유 등을 서면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대통령 직속인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정외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비위를 조사한다. 2014년에 도입, 시행됐다. /연합뉴스

안철수 27일 1박2일 일정 광주·전남 방문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가 오는 27일 1박2일 일정으로 광주와 전남을 잇달아 방문할 예정으로 알려져 주목받고 있다.

18일 국민의당 관계자는 "안철수 전 대표가 다음 주 주말 나주 혁신도시와 구례 등을 방문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전남 방문을 전후해 광주에도 들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광주·전남지역 방문을 통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호남에서의 국민의당

지지를 하락과 관련, 안 전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 주목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안 전 대표와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킬만한 정권 창출에 대한 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점에서 안 전 대표가 이번 방문에 앞서 메시지 마련에 상당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건전 장례문화 발전을 위한 가격 공개!"

8년전 가격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음식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밥	60인분	60,000	고사리나물	3k	45,000	동대+애호박전	4k	96,000
육계장	60인분	114,000	표고버섯나물	3k	54,000	초고추장(직접만들)	1병	15,000	
쇠고기무국	60인분	114,000	파이고추멸치조림	3k	78,000	양념새우젓(국산)	1k	15,000	
북어무채국	60인분	108,000	명태코다리조림	4k	88,000	인절미	6k(3되)	54,000	
된장국(국산검은콩)	60인분	96,000	오이도라지무침	4k	84,000	기피인절미	6k(3되)	57,000	
배추김치(국산)	5k	57,500	홍어회무침	4k	104,000	골떡/절편	6k(3되)	45,000	
도라지나물	3k	45,000	홍어사시미	4k	120,000				
새송이나물	3k	54,000	돼지삼겹(수입)깃가	5k	105,000				
취나물(계절)	3k	54,000	돼지삼겹(국내)깃가	5k	190,000				

장례용품비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구분	수량	단가
	0.6오동관	1개	200,000	저출몰맞춤식물처리비용	2회	100,000	항/원장(세트)	1개	5,000
수의(화장)	1벌	200,000	수세복	1벌	30,000	매배	1회	150,000	
초립비	1회	100,000	액자리본(고급)	1개	5,000	입관용품	세트	150,000	
안치실	1회	100,000	항위패	1개	20,000	양초(대)	1개	10,000	
염습비	1회	300,000	방인세트	세트	80,000	여성복	1벌	18,000	
염실임대료	상조	250,000	부위록	1권	15,000	넥타이	1개	3,000	

주류·음료 소주 1,500 / 맥주 1,600 / 콜라, 사이다 700

맛과 품질과 중량을 반드시 비교해 주십시오

- 전 빈소 전자저울 비치로 음식 중량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물품 판매 즉시 전산전표 발행으로 실시간 장례비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는

그린장례식장

www.greenfuneral.co.kr

Tel. 062) 250-4455

광주광역시 동문대로 255 (문흥동 876-17)

그린은, 유가족과 슬픔을 함께하며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고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그린에서 상을 치루시면, 전국 어디서나 문상객이 찾아오기 편리하며, 쾌적한 접객실, 맛있는 음식, 품격있는 행사와 의전으로 고인에 대한 예와 품격을 높이고, **장례비용은 대폭 절감하여 상주님께 큰 이익이 됩니다.**

그린장례문화원 250-4455

